

폐교 위기 시골학교 살린 '힐링교육'

강진 음천초교 주민·학교 의기투합... 郡도 적극 지원 친환경 교실 조성·자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 '인기' 타지역 학교와 자매결연... 도시학생 전학도 날로 늘어

강진 음천초등학교가 힐링 교육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이 학교가 내놓은 힐링 시설 및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도시 학생들이 꾸준히 찾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광주와 경기도에서 학생 4명이 전학을 오면서 학생 수도 늘고 있다.

학교 중 가장 작은 학교, 초등학교 19명, 유치원생 12명으로, 학생 수는 모두 31명이다. 지난 2010년에는 유치원생을 제외한 초등학교 수가 21명으로 감소, 폐교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주민과 학교관계자들이 청정지역이라는 이점을 살려 힐링교육으로 시골학교를 되살리기로 의기투합한 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우선 기존 교육과정에 농촌체험교육, 힐링유학캠프, 도시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예술교육 등을 추가했다. 특히 힐링유학캠프는 산촌유학체제를 희망한 도시권 1~6학년 초등학생들이 음천초등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비석치기, 제기차기, 그네타기 등 전통놀이, 엄지마을 영산천 다슬기·작은 물고기 잡기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은 도시 유학생들을 위해 엄지마을을 기숙사로 제공하면서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힐링유학캠프에 참여한 광주 봉선초등학교는 음천초교와 지 9월12일 자매결연을 맺고, 산촌·도시 간 학교 교류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류는 물론 교육·예술문화현장 학습을 공유하자고 협약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음천초교와 주민들의 이 같은 노력에 부응, 도시권 학생들을 위해 숲 체험길 산책로(2.6km)를 조성했으며, 친환경 교실 조성, 천연잔디 운동장, 아토피 교육, 농촌유학센터 운영 등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광주에서 1·3학년 2명과 경기도에서 유치원생 2명이 전학을 오는 등 학생 수가 늘었다. 임금순 음천초 교장은 "순수한 자연과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도시권의 학생들을 유치, 학교와 지역을 동시에 살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지난 8월 강진군 음천면 음천초교 힐링유학캠프에 참여한 광주 봉선초교 학생들이 옥수수 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목포 원도심 공동화... 학교도 떠난다

청호중·전남제일고, 용해동·남악신도시 이전 추진

목포 원도심 공동화가 교육현장까지 미치고 있다. 청호중과 전남제일고등학교가 아파트 밀집지역과 남악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971

년 개교한 청호중은 학부모, 동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찬성의견이 많아 용해동 주택단지로 이전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목포교육지원청에 이전요구서까지 제출했다. 이전비는 250억원이며 2016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전남제일고는 남악신도시인 옥암 대학부지로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의 한 관계자는 "원도심 학교 이설은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격차를 부추겨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반대했다. 원도심 지역의 유달중, 목포여중, 청호중 등은 학생 수가 오는 2018년까지 20~40% 감소하지만 남악신도시에 있는 옥암중, 애향중 등은 10% 이상 늘 것으로 목포시는 예상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올해도 장성에서 개최

30일, 화순·영광 등 6개 시·군 150개 업체 참가

장성군은 9일 "지난해 군 단위 최초로 개최한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난데 힘입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장성군이 주최하고 (재)전남여성플라자와 장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새 일로 시작하는 비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30일 홍길동체육관

에서 열린다. 장성은 물론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 등 도내 북부권 6개 시·군과 150개 구인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채용관, 창업관, 취업상담관, 진로탐색관, 여성친화관 등의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취업·창업정보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여성 구인·구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관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 우량기업 20곳, 민간업체 130곳 등이 현장에서 1대1면접을 통해 가능한 단일 채용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창업관은 창업상담을 비롯해 자금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상권분석까지 안내한다. 취업상담관에서는 6개 시·군의 지역별 취업설계사가 보다 생생하고 실질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테마부스인 진로탐색관은 유망직업체형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그에 맞는 직업을 알아보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여성친화관에서는 스토레스 해소 등 여성 자아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2013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지난 8일 장성공설운동장에서 장성·담양지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음반별로 나뉘어 소방호스 전개, 단체 줄넘기, 수관 옮기기 릴레이 등의 경연을 펼쳤다.

(장성군 제공)

쌍용차 모기업 인도 마힌드라 그룹 대표 일행

영광 대마전기차산단 방문 투자 여부 관심

쌍용자동차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미국 내 전기자동차 제조법인 대표가 영광의 대마전기차산단을 방문해 투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마힌드라 GenZe사의 산제이 대표 일행이 8일 영광 대마전기차산단을 방문해 투자 타당성 등을 살펴봤다. 산제이 대표는 정기호 영광군수가 지난달 중순 미국 내 마힌드라 GenZe사를 방문한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날 영광을 찾았다. 산제이 대표는 영광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e-모빌리티(Mobility) 산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는 산제이 대표에게 영광군



마힌드라 GenZe사 대표 일행이 8일 대마산단을 방문, 정기호 군수(왼쪽 세 번째)로부터 전기차 투자 현황을 듣고 있다. (영광군 제공)

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e-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제이 대표는 "조만간 다시 만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해 투자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곡성 심청효문화축제 관광객 12만명 다녀가

곡성군은 9일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 제13회 곡성심청효문화축제를 즐기 위해 행사장인 섬진강기차마을에 입장한 관광객 수가 12만 여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축제에서는 '심청의 효'와 '황후마마 심청의 행복'을 가족 사랑으로 재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축제 기간 동안 선보인 '소원등 달기'와 '전통민속놀이' 등도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었다. 군은 이번 축제에 12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지역을 찾아 32억원 정도의 직·간접 소득이 창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여수시, LA한인축제 참가 2억여원 판매 실적

여수시는 9일 "지난달 26부터 29일까지 4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40회 LA한인축제 및 제7회 한국농수산물 EXPO' 행사에 참가, 2억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나래식품, 선해F&S, 종말이푸드, 여수새고막, 여수수산물여조합, 금호갓김치 등 6개 지역 업체에서 24개 품목을 전시한 이번 행사에서는 냉동선어, 갓김, 돌산갓김치, 순살멸치, 간장

계장 등이 교민들의 인기 품목으로 꼽혔다. 특히 이번 판매전에서 참가업체들은 기존 품목 외에 파김치, 고들빼기, 건조갈치, 홍합, 민어, 가자미, 돌계장·간장계장 등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선보여 현지 교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행사 판매를 통해 1억5000만원의 실적을 거두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2억원이 넘는 예상 밖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벼 베기·탈곡 체험하세요"

전남농업박물관, 가족단위 신청자 접수

전통 벼 탈곡 농기구 밋뿔·흙태 체험도

전남도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박물관 야외의 친환경농업관찰학습장 일원에서 가족단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벼 베기 및 탈곡 체험' 행사를 연다. 이번 체험은 농업박물관이 전통 방식대로 모를 심고 친환경 오리농법을 통해 146일 동안 재배한 벼를 수확하는 행사다. 농업박물관은 19일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까지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전시사대의 돌날부터 현대의 콤팩트인 이르기까지 곡식을 거두는 각종 농기구 종류와 변천사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참가

자들이 직접 낫을 이용해 벼 베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각종 벼 탈곡 농기구인 밋뿔을 비롯한 개상, 흙태, 그네, 굴통 탈곡기 등을 내놓아 참가자들이 직접 탈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0가족 150명을 18일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는 1인당 3000원이다. 신청은 전화(061-462-2796~9)나 이메일(mh3812@korea.kr) 등을 통해 신청자 명명과 참가자 수,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된다.

/장평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가족들 조기정착 유도

해남 땅끝마을 등 '남도문화탐방' 실시

전남도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혁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 남도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지난 7일까지 2일간 광주 전남공공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을 대상으로 영암, 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남도문화탐방에 나섰다.(사진) 첫날은 F1극제자동차경주대회를 관람하고 해남 땅끝 관광지를 방문했다. 특히 영암에서 열린 F1대회는 지구촌 최대 스피드 축제로 320km가 넘는 스피드와 귀를 찢을 듯한 굉음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날은 해남 미항사, 나주 금성관 등 남도의 문화유산을 관람했다. 또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홍보관을 찾아 혁신도시의 정주 환경 등 추진상황을 알아보고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전남도는 이번 남도문화탐방이 지역민의 이해도를 높여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 기대하고 있다. 설동진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혁신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도를 바로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남도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평수기자 bungy@kwangju.co.kr